

# 고대 등 10개大 ‘고교교육 내실화’ 지원 대상서 탈락 위기

(재정)

## 교육부, 2019 중간평가 결과 발표

탈락 사유, 학생부전형 면접 운영 입학사정관 계획보다 미달 선발 등 건국대 등 57개大 지속 지원키로

고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대입 전형을 치르는 대학을 지원하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받던 67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는 7일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기존 지원 대학 67개교 중 계속 지원대학 57교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계속 지원 대학에서 제외된 10개 대학과, 신규 지원 신청 대학의 경쟁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평가는 6월 초 진행된다.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교육 내실화와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대학에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도입됐다.

##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계속지원대학 명단〉

유형 I (52교)					유형 II (5교)
수도권1 (13교)	수도권2 (11교)	지방1 (13교)	지방2 (10교)	특수목적 (5교)	지방중소형 (5교)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서울대 송실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가톨릭대 강남대 광운대 대진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세종대 아주대 안양대 인천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공주대 대구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 충남대	부산가톨릭대 선문대 순천향대 안동대 전주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남대 한림대 한밭대	경인교대 광주교대 금오공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강릉원주대 건국대(글로벌) 군산대 대구한외대 청주교대

/자료=교육부

이번 중간평가는 기존 지원대학 67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깜깜이 전형’ 등으로 주목받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관련 평가지표가 상향돼 진행됐다.

평가 결과 수도권1의 경우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등 24개 대학은 계속 지원을 받지만, 고려대, 성균관대, 서울과기대, 숙명여대 등 4곳은 최종 경쟁 심사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가 가려진다.

또 지방 대학 중에서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등이 계속 지원을 받지만, 부산대, 전북대, 순천대, 한동대, 한국교원대, 우석대가 중간평가에서 탈락했다.

평가는 지난해 관련 사업 운영실적과 올해 사업계획 위주로 진행됐으나, 대입전형 개선 유도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2020~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대입 정책 방향을 따르지 않는 대학을 재정지원사업에

서 제외하는 등 교육부가 대학의 대입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확정된 2022학년도 대입개편에 따라, 수능위주로 뽑는 정시모집 비율을 30% 이상으로 할 것을 대학에 권고했다.

아울러 급격한 대입의 변화를 막기 위해 2021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확대를 기대했다.

이번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고려대의 경우 2021학년도 대입계획에서 정시전형을 늘리는 대신 학생부교과전형을 3배 가까이 대폭 확대해 교육부 정책에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다. 교육부는 고려대 학생부교과전형이 ▲학생부교과성적 60% ▲서류평가 20% ▲면접 20%를 반영해 사실상 학생부종합전형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논란과 관련해 중간평가 기준에 학생선발 비율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고려대의 경우 입학사정관을 계획보다 적게 채용했고, 고른기회전형 선발 인원이 적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부교과전형을 면접 위주로 운영한 것 등을 탈락 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지난해 8월 확정된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과 연계해 학종의 전면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간평가 탈락한 대학의 고교교육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기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고려대의 경우 지난해 이 사업에 따라 15억6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성균관대는 9억4000만원, 숙명여대는 7억9000만원, 서울과기대는 6억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계속 지원 대학에는 채용사정관 수 등을 고려해 최소지원금을 우선 배분하고, 추가 선정 평가 이후 최종 지원금을 확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탈락한 대학에는 이번 중간평가 결과를 상세히 안내해 이의신청과 전형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악기나눔 행사 참여한 조희연 교육감

7일 오전 서울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로비에서 열린 ‘교육지원청 교육장 악기 기증식’에 참가한 관내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조희연 교육감(오른쪽 네 번째)과 함께 기부하는 악기를 든 채 연주회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비영리 공익재단 아름다운가게, 낙원상가와 손잡고 악기를 기증받아 수리한 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빌려주는 악기나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악기 기증은 서울 소재 아름다운가게 30곳과 낙원상가(C224호)에서 오는 6월 15일까지 가능하다.

7일 오전 서울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로비에서 열린 ‘교육지원청 교육장 악기 기증식’에 참가한 관내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조희연 교육감(오른쪽 네 번째)과 함께 기부하는 악기를 든 채 연주회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비영리 공익재단 아름다운가게, 낙원상가와 손잡고 악기를 기증받아 수리한 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빌려주는 악기나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악기 기증은 서울 소재 아름다운가게 30곳과 낙원상가(C224호)에서 오는 6월 15일까지 가능하다.

## 광운학원 15일 조광운 설립자 전기 출판기념회

광운학원은 광운대 전신인 조선무선강습소·조선무선공학원의 설립자 화도 조광운 박사의 전기 ‘항상 그대와 함께 걷는 길-광운학원 설립자 화도 조광운의 생애



와도전’ (역사비평사·사진) 출판기념회를 15일 오후 2시 광운대 동해문화예술관 소극장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한용수 기자

## 단국대 발레무용단 오늘 몽골서 ‘명성황후’ 공연

단국대가 대학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몽골과의 문화예술교류 확대를 위해 8일 몽골국립오페라발레극장에서 창작발레 ‘명성황후(The Last Empress)’를 공연한다. 공연단은 단장을 맡은 장충식 이사장을 포함해 학부,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무용단, 스태프 등 모두 33명으로 구성됐다.

장충식 단장은 “1993년 국내 유일의 몽골학과를 신설한 후 26년째 신(新)실�크로드의 중계역으로 부상한 몽골 지역 전문가 양성에 매진해왔다”며 “몽골국

립대, 몽골과학기술대와 꾸준히 학생을 교류하고 있고 특히 몽골의 우수한 문화 예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고 공연 배경을 설명했다.

단국대는 이번 공연에 오차르바트 몽골 전 대통령, 찬지드 전 장관, 몽골국립대·몽골과학기술대·몽골국립예술대 등 6개 자매대학 총장, 정재남 주몽골 한국대사와 직원, 몽골발레협회 임원, 몽골발레협회 임원 등 관계자와 교민들을 대거 초청했다.

/한용수 기자

## 취준생 꿈의 건설사는 ‘GS건설’

### SK건설 > KCC건설 > 대우건설 선호 이유, 연봉보다 ‘기업 이미지’

건설사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건설사로 GS건설을 꼽았다. 취업 선호 기업을 정하는 기준은 연봉보다 평소 기업 이미지라는 응답이 많았다.

잡코리아는 건설사 취업을 준비하는 신입 취준생 1110명에게 2018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50개사를 보기문항으로 가장 취업하고 싶은 건설사를 꼽아보게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 ▲GS건설은 복수선택 응답률 42.1%로 전체 응답자 10명 중 2명

이 취업을 하고 싶은 기업으로 꼽혔다. 이어 ▲SK건설(29.5%) ▲KCC건설(19.4%) ▲대우건설(16.6%) ▲현대건설(16.4%) ▲삼성물산(건설/15.6%) ▲두산건설(14.8%) ▲롯데건설(14.6%) ▲포스코건설(14.3%) ▲두산중공업(13.2%) 순이었다.

취준생들의 건설사 취업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평소 기업에 대한 이미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건설사 취업을 선호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평소 기업 이미지가 좋아서’라는 응답자가 25.1%로 4명 중 1명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봉이 높을 것 같다’(12.8%)거나 ‘가장 성장성

있는 기업으로 보여서(8.0%)’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꼽았다는 답변이 높았다. ‘건설회사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아서’ 해당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4.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GS건설은 3년 전 잡코리아가 동일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가장 취업하고 싶은 건설사 1위를 차지했다(응답률 44.6%), 2,3위도 SK건설(29.0%), KCC건설(24.8%) 순으로 올해 동일조사와 순위가 같았다. 단 현대건설(17.1%)과 삼성물산(건설/14.7%)은 3년 전 취업선호도 각 4위와 5위에 랭크됐으나 올해 각 5위와 6위로 랭크돼 한 단계씩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 ‘66만원으로 한 달 살기’ 직장인 “절반은 식비에”

직장인의 월평균 용돈은 66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용돈의 절반 가량은 식사 등 먹는데 썼다.

인크루트는 바로면접 알바앱인 알바콜이 직장인 7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직장인 용돈은 10년 전 같은 조사 때 집계된 45만5000원보다 20만8000원, 비올로는 약 46% 증가했다. 용돈 지출이 가장 큰 항목은 식비(28%)였고, 교통비(23%), 부식비(17%) 순으로 절반 가량을 먹는데 썼다. 이외에 취미 또는 문화생활비(7%), 쇼핑(6%), 유튜브·친목, 모임(각 5%), 자기계발비(3%) 순이었다.

10년 전 조사에서 용돈 지출 항목은 유희비(28.2%)가 가장 많았고, 식비(25.7%), 교통비·유류비(14%), 취미생활(11.6%), 쇼핑(7.2%), 자기계발비(4%) 순으로 지금과 차이가났다.

## 女직장인 10명 중 4명 “육아휴직 못 썼다”

기업 28% “육아휴직 못 쓰도록 압박”

임신한 직원 10명 중 4명 이상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사람인이 기업 971개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전체 임신 직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 비율은 57.3%로 전체 임신 여성 직원 10명 중 6명이 채 되지 않았다. 대기업은 평균 66%, 중소기업은 평균 54.2%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평균 휴직 기간은 9.5개월로 집계됐다. 정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가파른 상승세지만, 여전히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낮았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이 있다는 기업은 14.2%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의 평균

휴직 기간도 6.6개월로 여성 직원에 비해 2.9개월 짧았다.

기업 10곳 중 7곳(68.3%)은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기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 돼서’(50.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대체인력 채용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48.3%), ‘현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해서’(43%), ‘복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24.6%), ‘대체인력의 숙련도가 낮아서’(20.2%) 등의 순이었다.

또 기업의 28.1%는 직원들의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껴 사용을 제한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 방식(복수응답)으로는 ‘사용 자체를 강제로 제한’(34.4%)하거나, ‘기간 단축 권고’(32.3%), ‘미사용 권고’(28.5%), ‘기간을 강제로 제한’(22%) 등이었다.

/한용수 기자